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 경제 전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관세 우려로 미 소매 판매 2개월째 줄어
- Bloomberg: 미 산업 생산도 2개월째 계속 하락
- WSJ: 연준이 인플레 둔화에도 금리 인하 안 하는 이유는

### [미국 금융]

- Bloomberg: 많은 수출업들 더 이상 달러 선호하지 않아
- Bloomberg: 미 국채 가격 상승세 유지...연준 금리 동결 상황

### [미 세제 정책]

- Bloomberg: 상원 법안, 기업 세금 감면 확대하고 주·지방 소득세 협상은 지연

### [오일]

- WSJ: 국제 에너지 기구(IEA), "석유 공급 양호하나 지정학적 위험으로 불확실성 커진다"

### [주택]

- YahooFinance: 미국 주택 건설업체 신뢰 지수 2022년 말 이후 최저치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제트블루, 여행 수요 부진 예상으로 비용 절감 조치
- WSJ: 볼보-다임러 트럭, 차량 소프트웨어 합작법인 "코레투라" 출범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Retail Sales Drop for Second Month as Tariff Anxiety Sets In 관세 우려로 미 소매 판매 2개월째 줄어

- 5월 들어 미 소매 판매가 2개월째 줄어들었다. 관세와 개인 재정 상황 소비자들이 연초의 적극적인 구매에서 뒤로 물러선 것이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인플레 조정 없이 소매 전체 구매 가치는 올해 초 이래 가장 크게 줄었다. 감소 폭은 0.9%. 4월에는 소매 지출이 0.1% 줄어 두 달 연속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
- 13개 품목 종류 중에서 7개가 하락했는데 빌딩 자재, 가솔린, 자동차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이들은 관세 예상 전에 서둘러 매입하다 이번에 매출이 줄어들었다. 식당 매출이 지난 2023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Industrial Output Declines for Second Time in Three Months

### 미 산업 생산도 2개월째 계속 하락

- 미 산업 생산도 5월 들어 0.2% 감소했다. 3개월중에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특히 유틸리티 생산이 둔화 되는 등 제조업체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구체적으로 제조 생산은 5월에 자동차 조립 등으로 0.1% 상승한 반면에 유틸리티 생산은 2.9% 하락했다.
- 현재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정책과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회사들이 수요 상황을 판단하기 힘들고 단기적으로 생산업체들을 위한 전망도 어려운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 WSJ: Why the Fed Isn't Cutting Rates Despite Cool Inflation

### 연준이 인플레 둔화에도 금리 인하 안 하는 이유는

- 최근에 인플레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 리스크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기대 인플레는 측정하기 쉽지 않지만 실제로 인플레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상황과 반대로 기대 인플레 상승 리스크의 서로 상반된 금리 변동 요인을 저울질하고 있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Many Exporters No Longer Want Dollars, US Bank Executive Says

### 많은 수출업체들 더 이상 달러 선호하지 않아

-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해외 수출업체들로부터 요청들 받는다. 결제 통화로 달러가 아닌 유로, 중국 위안화,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로 받을 수 없느냐고.
- 달러는 올해 다른 주요 통화보다 8% 약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수출업체들은 달러 보유를 줄이려는 주제를 보이고 있다.
- 이같은 달러를 회피하는 방식은 무역 결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남미와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수출업체들은 계약 시 자국 통화나 유로나 위안화 같은 다른 대체 통화 결제를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Treasuries Hold Gains as Fed Rate-Cut Expectations Remain Intact 미국채 가격 상승세 유지...연준 금리 동결 상황**

- 오늘 화요일 미 소매 판매 데이터가 감소 추세를 보인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3.95%, 10년물은 4.42%를 기록하고 있다.
-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한 번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에 금리 인상은 완전히 반영하고 있고 연준이 내년 6월과 7월에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미 세제 정책]**

## **Bloomberg: Senate Bill Expands Business Tax Breaks, Delays Deal on SALT 상원 법안, 기업 세금 감면 확대하고 및 주·지방 소득세 협상은 지연**

- 상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TCJA)을 영구화하고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상향한 법안을 제시했다.
- 이는 가계와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일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메디케이드 혜택 감면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주 및 지방세 공제(SALT)에 관해서는 하원안에 제시되었던 40,000달러 상한선을 기존의 10,000달러로 유지함에 따라 이 항목을 놓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하되 “placeholder” 조항으로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부유한 개인과 기업만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 비판하고 있고, 일부 경제학자는 이 세금 인하 계획이 이미 급증하고 있는 정부 적자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 경고한다.

Bloomberg 기사

### **[오일]**

## **WSJ: Oil Market Well Supplied But Geopolitical Risks Bring Uncertainty, IEA Says 국제 에너지 기구(IEA), “석유 공급 양호하나 지정학적 위험으로 불확실성 커진다”**

-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석유 시장의 공급이 풍부하고 여전히 생산량이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 이 기관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운송 면에서 석유 의존도가 줄어듦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 1억 550만 배럴 정도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비OPEC+ 산유국들이 전 세계 공급 증가의 약 3분의 2를 담당할 것이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량의 40%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 이들은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공급 부진으로 인해 2025년 세계 석유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내년 전망치 또한 경제 성장을 둔화와 청정 에너지 기술 도입 증가로 인해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성이 높다 밝혔다.

WSJ 기사

### [주택]

#### **YahooFinance: US Homebuilder Sentiment Drops to Lowest Level Since End of 2022 미국 주택 건설업체 신뢰 지수 2022년 말 이후 최저치**

- 미국 주택 건설업체들의 6월 신뢰도가 2022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잠재적 구매자들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관세, 그리고 불안정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주택 건설업 신뢰 지수가 3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전미 주택 건설협회(NAHB)와 웰스파고 은행이 발표한 수치는 2포인트 하락한 32에 그쳤다.
- 전미 주택 건설협회(NAHB) 분석가 Robert Dietz는 올해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단독주택 착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구매를 꺼리는 구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판매 인센티브와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건설업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주택 건설 비용이 주택당 평균 1만 1천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신규 주택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덧붙였다.
- 한편, 이번 주 수요일에 정부 월간 보고서를 통해 신규 주택 시장에 대한 새로운 상황이 제시될 예정이다.

YahooFinance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JetBlue Steps Up Cost Cuts on Weaker-Than-Expected Travel Demand 제트블루, 여행 수요 부진 예상으로 비용 절감 조치 확대**

- 제트블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예상보다 낮은 여행 수요에 따라 일부 항공편을 없애고, 여러 도시로 가는 서비스를 종료하며, 경영진을 재편하는 등 비용 절감 조치에 나섰다.
- 현재 제트블루는 지원 센터 예산을 삭감했고, 채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지출도 재검토하고 있다.
- 운항 중인 기존 에어버스 항공기 10대 중 4대를 정비 대상에서 제외해 여름 말까지 운행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 제트블루 최고경영자 Joanna Geraghty는 “여전히 차입금에 의존해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회복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른 항공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려 했던 두 차례의 실패에 직면했음을 언급했다.

- 제트블루는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로 인해 이미 전체 수용 능력을 줄였고, 20개의 도시에서 운영을 축소했다.

Bloomberg 기사

## **WSJ: Volvo, Daimler Truck Launch Vehicle Software Joint Venture 볼보-다임러 트럭, 차량 소프트웨어 합작법인 “코레투라” 출범**

- 트럭 제조업체 볼보와 다임러 트럭이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에 나서며, 공동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작법인 ‘코레투라 (Coretura)’를 출범시켰다.
-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두 기업은 이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개인의 요구에 기존 차량보다 더욱 쉽게 적응하고자 한다 밝혔다.
- 두 기업 모두 이 플랫폼을 사용해 자체 소프트웨어 기반 트럭과 버스를 생산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제조업체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다임러 트럭 CEO Karin Radstrom은 “코레투라를 통해 트럭과 버스의 디지털 중심 미래를 여는 관문이며, 상용차를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고 전했다.

WSJ 기사

### **[보고서]**

## **"BofA "외국 투자자의 미국 국채 수요에 균열"...또 경고음" 각국 중앙은행 등 미 국채 보유량 3월 말 이후 감**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재정적자 우려 속에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3월 이후 미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메건 스위버 등 전략가들은 '외국의 미 국채 수요에 균열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